

老? NO! ...날마다 새롭게 세상과 접속하라

선배수업

황현산 외 지음

“흥시여 잊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젊었다는 것을.”

일본 근대기 시인이자 영문학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가 쓴 ‘하이쿠’(俳句)는 절묘하게 흥시를 인생에 비유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진로를 모색하는 청소년기부터 은퇴 후 인생 2막을 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고심할 수밖에 없는 화두(話頭)이다. 최근 출간된 ‘선배수업’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들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 10월 사회명사를 초빙해 6차례에 걸쳐 진행한 강좌를 정리한 책이다. 지난 2015년 나온 ‘나이들 수업’에 이은 두 번째 결실물이다. 강좌는 생성과 성숙, 겸허, 불복종, 창조, 참어 등 6개 키워드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책은 ▲생신자로서의 노년, 공공성에 기여하기(김찬호 문화인류학자)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노년, 나 자신을 만나는 일(전호근 고전인문학자) ▲자기를 비우는 노년, 좋은 사회의 희망에 대해



노년에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수렴되는 지점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무신 멀리 보내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

한 약속(황현산 문학비평가) ▲저항하는 노년, 시스템의 노예로 살지 않기(박경미 신학자) ▲놀이하는 노년, 쓸모없음의 즐거움에 눈뜨는 시간(김용희 미학자) ▲연대하는 노년, 어른의 대안문화를 꿈꾸다(심보선 시인·사회학자)와 같이 노년의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저자들이 6개 강좌를 통해 공통으로 강조하는 논지는 “자아를 갱신하면서 세상과 새롭게 접속하라는 것, 삶의 주인공으로 중심을 확고히 세우면서도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라는 것”이다. 청춘을 지나 중년에 접어들어 이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노년의 삶을 막막하게 느낀다. 이 책은 ‘100세 시대’에

맞춰 ‘어떠한 노년의 삶을 준비할 것인가’ 고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내용을 글로 옮긴 까닭에 ‘노년 인문학’이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하다.

〈서해문집·1만4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윤리·도덕·인성 빠진 교육이 불공정 사회 만든다

올빼미 눈에 비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김지수 지음

광주 출신 김지수 교수(전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대학)가 한국을 떠난 건 지난 1960년대 중반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대학 교수가 된 후 60대 초반까지 40여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미국 교수직에서 조기 은퇴, 2009년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중병을 앓고 있는 나라였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지향하며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신적인 성숙함은 도외시 한 채 외형적 발전만 쫓는 모습이 문제였다. 그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살아 있는 나라,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나라, 지도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나라다. 그가 펴낸 ‘올빼미 눈에 비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명품 대한민국’을 만들 ‘명품 인간, 명품 시민’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오랜 기간 살타였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느꼈던 점과 한국에 다시 돌아와

겪고, 보게 된 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

무엇보다 현실감 있고, 풍부한 사례 덕에 재미있게 읽으며 전공인 통계학자답게 각종 통계 자료를 덧붙여 신뢰성을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원인을 ‘교육’에서 찾는다. 윤리·도덕·인성이 빠진, 입시 위주 교육이 남긴 후유증이 바로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2장 ‘한국어는 사어가 될 건가’는 어느 순간 영어 광풍의 나라가 되어 버린 우리 상황을 적나라하게 꼬집는다. 그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충격받은 것중의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외래어 남발이었다.

국문학자들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쏟아 지던 온갖 외래어, 외국어 어느 거리를 연상케하는 영문 간판이 난무한 중심가

등 영어로 오염된 대한민국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그밖에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국민 독서율, 만연한 표절문화,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인 사회 풍토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든다.

저자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배려가 사라진 사회, 이기적인 사람이 넘쳐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미국이나 외국을 무작정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의미로 쓴 책이 지금까지 당연시 했던 풍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은 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 수익금 전액은 국민정신 건강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주 서중·경기고를 거쳐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수학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조기 은퇴했으며 귀국 후 전남대 BK21 교수, 연세대 연구 교수로 재직했다.

〈지식공감·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감정의 온도=매일 더 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셀프 테라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두려워,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면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간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가 실용적인 감정 조절 팁을 제공한다. 저자가 이십 년 동안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 상담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담긴 팁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다.

〈레드박스·1만4800원〉

▲리플릿=소설가 백민석의 첫 미술 에세이. 때로는 진보하고 때로는 퇴보한 예술과 시대의 자장 안에서 백민석은 작가로서의 8년과 절필 후 잠적한 10년의 시간을 하나로 엮어준 ‘미술관 순례’를 기록한다. “글을 쓰지 않을 때도 미술관은 다녔다”는 저자의 글 속에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를 흔든 정치적, 문화적 이행과 그 시대를 고스란히 겪은 저자 내면의 풍경이 함께 담겨 있다. 〈한겨레출판·1만6000원〉

▲중국 화폐의 역사=5000여 년에 걸친 중국 화폐의 변천사를 다양한 컬러 도판들과 함께 정리했다. 역대 중국의 각 왕조들이 발행한 수많은 화폐들의 발행 동기, 제원, 과정, 화폐에 얽힌 일화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중국내 여러 소수민족들이 발행한 대표적인 화폐들과 화전(花錢·형태는 화폐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쓰인 게 아니라 장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모조 화폐들)들도 함께 소개한다.

〈다른생각·1만5000원〉

▲포근하게 그림책처럼=“그림책이 좋아서”의 두 번째 이야기. 오직 그림책만으



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흔들림 없이 그림책 육아를 해냈던, 그러다 엄마 자신이 그림책에 푹 빠져 버린 평범한 엄마 제민 씨가 첫 번째 책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그 후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저자는 그림책 육아의 핵심은 훌륭한 권장도서 목록이 아니라 단 한 권이라도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읽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헤르츠나인·1만5800원〉

▲마르틴 루터 한 인간의 운명=20세기 새로운 역사학을 개척했던 프랑스 아날 학파의 창시자 튀시앵 페르브의 ‘루터’ 연구.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에 의해 익히 그 명성이 알려진 이 책은, 16세기 독일 종교 개혁기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신성로마제국 아래 정치적·사회적으로 복잡하게 맞물리는 격동의 유럽 역사를 성찰한다. 페르브 생전에 영어권 독자들에게 알려진 그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며, 1951년에 제3판 서문을 다시 쓸 정도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혔던 명저이다. 〈이르비·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목 짧은 기린=짧은 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늘 혼자 지내는 목 짧은 기린 제프리는 우연히 날지 못하는 새 피터를 만나고 서로의 단점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친구가 된다. 어느날 제프리의 목이 토끼 굴에 끼이는 일이 생기자 당황한 피터는 열심히 날개를 퍼덕이며 동물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간다.

〈아름다운사람들·1만2000원〉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오페라 이야기=어린이를 위해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의 모든 것’을 담았다. 오페라가 무엇인지, 오페라의 역사와 더불어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 세계적 오페라 작곡가와 작품, 오페라 극장과 용어, 공연 관람 시 예절 등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책에 소개된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문학 작품과 오페라를 동시에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라바람·1만2000원〉

▲통개가 된 우리 아빠=잠시 영국에



가게 된 하랑이는 개를 정말 싫어하는 아빠에게 강아지 코코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어느 날 구멍에 빠진 뒤 갑작스럽게 개가 되어버린 아빠는 코코와 말이 통하게 되면서 개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 개와의 추억, 개로 인해 찡피를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코코와 이야기하게 되고 코코와 우정을 쌓아간다.

〈뽀뽀·9500원〉

▲황소고집 이순신=정유년에 다시 만나는 이순신, 이순신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에 누구도 꺾지 못하는 황소고집이지만, 완벽한 물입과 철저한 준비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해내는 개릭터다. 이순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우주나무·1만20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뻐는날 화, 목, 토, 일
- ▶ 불뻐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